

The Making of Biblical Womanhood

이른바 “성경적 여성의 역할”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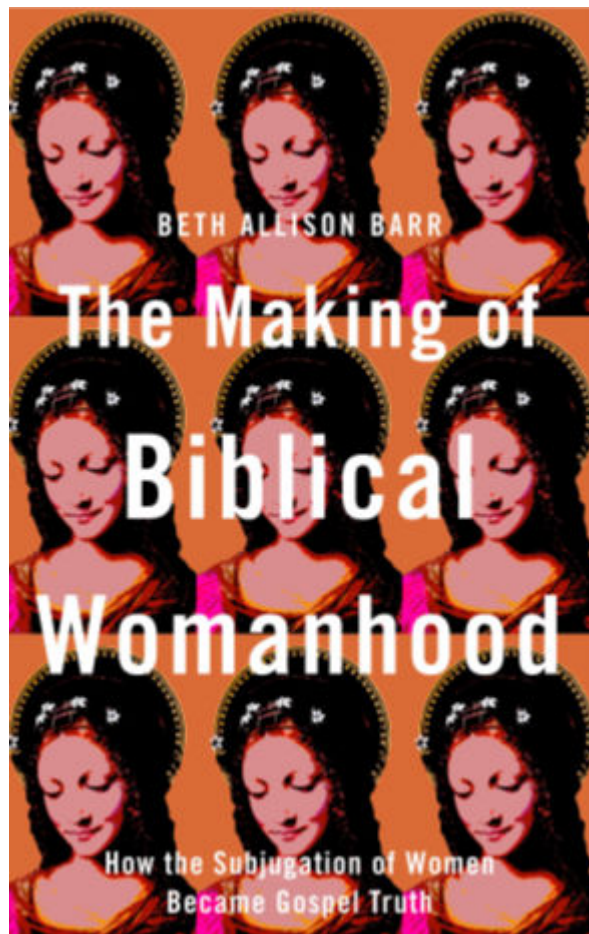
How the Subjugation of Women Became Gospel Truth

여성의 예속이 어떻게 복음의 진리가 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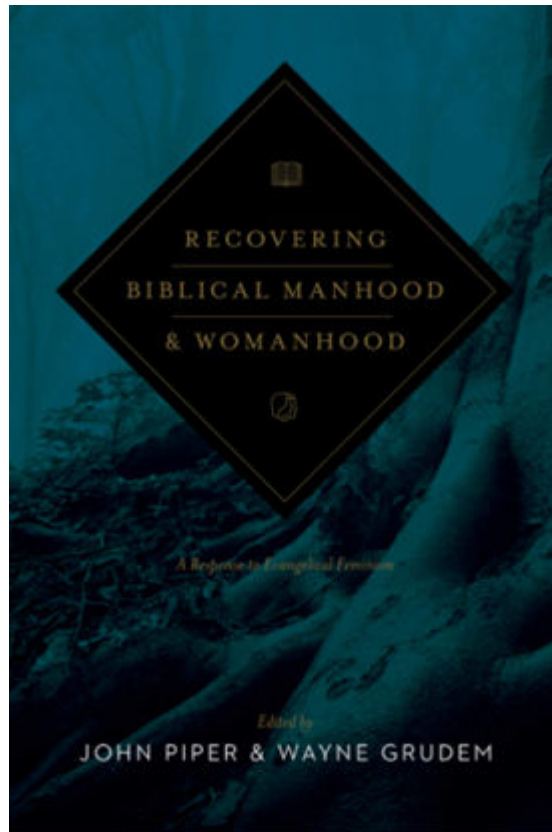
저자: 베스 엘리슨 바(Beth Allison Barr), 베일러 대학교(Baylor University) 역사학 교수(중세사 전공)

Beth Allison Barr · 독일어 번역: Hans-Jörg Ronsdorf · 2021년 4월 · 2026년 10월 개정

이 책은 1991년 미국에서 나온 책 Recovering Biblical Manhood & Womanhood에 대한 반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책은 결혼과 교회와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명백히 위계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을 대변합니다. 그 책은 2008년부터 독일어로도 나와 있습니다(아래 참조). 저자 또는 편집자는 웨인 그루뎀(Wayne Grudem, 독일어로도 나온 Biblische Dogmatik, 곧 『조직신학』으로 알려진 사람)과 잘 알려진 신학자 존 파이퍼(John Piper)입니다.



이 책은 다음 책에 대한 반응입니다.



독일어판:



차례

감사의 말

들어가는 말

1. 가부장제의 시작
2. “성경적 여성의 역할”이 바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3. 우리의 선택적인 중세 기억
4. 복음주의 여성들이 치른 종교개혁의 대가
5. 영어 성경에서 지워진 여성들
6. 복종을 기록하게 만들다
7. “성경적 여성의 역할”을 복음의 진리로 격상시키다
8. 이제 여성들을 자유롭게 할 때가 아닙니까?

미리 읽기: 제2장 번역(각주 없음)

우리의 “성경적 여성의 역할”이 바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나는 바울이 싫어요!”

이 말을 학생들에게서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대개 젊은 여성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된 방식 때문에 상처를 입었고, 흥터까지 남았습니다. 그들은 잠잠해야 하고(고전 14장),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며(엡 5장),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되고(딤후 2장), 집에서 일해야 한다(딤후 2장)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남자의 지도를 따르도록(고전 11장), 그리고 가족과 가정에 집중하도록(골 3장; 벡전 3장) 정하셨다고 배웠습니다. 또 가족 외의 다른 일은 여자들에게 부차적이어야 하며, 하더라도 대개는 어쩔 수 없을 때나 자녀들이 집을 떠난 뒤에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몇 년 전 한 여학생이 제 연구실에 왔습니다. 겉으로는 과제를 의논하러 온 것이었지만, 그녀가 정말로 의논하고 싶었던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는 것이 곧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수님을 교수이자 어머니이자 목사의 아내로 부르셨나요? 힘드셨나요? 집 밖에서 일하셔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셨나요? 남편분은 교수님을 지지하셨나요?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그녀는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란, 경력을 의식하는 그리스도인 여성으로서 겪는 좌절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와 가족의 기대를 자신의 직업적 목표와 조화시키려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그녀를 화나게 했습니다. 전공 때문에 걱정이 되어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차피 결혼해서 일을 하지 않을 테니 전공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딸의 걱정을 달래려 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정말 내가 학위를 한 번도 쓰지 않게 하려고 나를 4년 동안 대학에 보내는 거예요?”

집 밖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이 아버지의 태도는 드문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2017년 바나(Barna)의 연구는 미국인들이 대체로 지도적 역할을 맡은 여성을 점점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여성이 일터에서 맞닥뜨리는 상당한 장애물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뒤쳐져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의 태도에서 가장 놀라운 격차는 아마도 특정한 지도적 역할을 맡은 여성에 관한 것입니다. 2016년에 저는 웨인 그루뎀(Wayne Grudem)의 여성관, 곧 여성은 결코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가 여성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논평했습니다. 바나의 연구는 제 말이 옳았음을 보여 줍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대통령 출마를 지지한 그루뎀 같은 백인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여성 대통령을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집단에 속합니다. 적어도 일부 복음주의 유권자와 공화당 유권자(27-35퍼센트)에게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의 문제는 그녀가 민주당원이라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여자라는 것도 문제였습니다(복음주의 유권자의 27퍼센트와 공화당 유권자의 35퍼센트가 여성 대통령이 불편하다고 답했습니다). 3년 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의 대통령 출마가 같은 성별의 단두대에 오른 것을 보고도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이 복음주의적 확신들, 곧 그들이 왜 여성의 복종이 바뀔 수 없다고 주장하는지는 그들이 바울을 해석하는 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Council on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는 상호보완주의¹를 개관하면서 창세기 2장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이 창조 이야기를 읽는 그들의 방식은 고린도전서 11장과 디모데전서 2장에서 나옵니다. 바울의 말이 상호보완주의 가르침의 모든 측면을 규정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은 바울의 본문들이 성별 사이에 영속적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할의 차이를 규정하는 것처럼 읽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없는 권위를 행사합니다.

남자는 이끌고, 여자는 따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제 학생들이 바울을 싫어하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울을 잘못 읽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소년 사역을 시작한 초기에 남편과 저는 한 무리의 청소년들을 데리고 주말 전도 집회에 갔습니다. 강사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의 비밀 전도 무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틀렸다면 어떻게 할래?” 그 집회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지만, 이 질문은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역사학자로서의 제 일에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결론이 틀렸다면 어떻게 하지? 나는 증거를 다시 생각해 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교사로서도 이 질문이 유용했습니다. 특히 학생이 제게 다른 생각을 내놓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틀렸다면?”이라는 질문은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잘 듣도록 도와줍니다. 이 질문은 저를 겸손하게 지켜 줍니다. 저를 더 나은 학자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상호보완주의 복음주의자들에게 드리는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틀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주의자들이 바울이 이해되기를 원했던 방식이 아니라 현대 문화라는 렌즈를 통해 바울을 이해해 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주의 운동은 여성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이 문화적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여성의 리더십을 거부함으로써 문화적 압력에 굴복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에 대한 우리의 해석, 그리고 그 결과로 여성을 지도하는 일에서 배제하는 것이 “평이하고 자연스러운” 읽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태도와 사고방식에 우리가 맞추어 온 결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여성을 지도하는 일에서 배제하려고 바울을 사용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성의 복종이 성경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다는 뜻일 뿐입니다. 곧 우리가 여성을 대하는 방식을 예수께서 가능하다고 보여 주신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세상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학생들이 “바울이 싫다”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은 바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은, 바울 서신이 여성을 억압하는 성경적 성 역할 이해의 토대가 되어 버린 방식입니다. 바울 연구의 선도적인 학자 베벌리 로버츠 가벤타(Beverly Roberts Gaventa)는 복음주의자들이 “엄격하게 따라야 할 신학적 진술과 윤리적 지침을 찾으려고 바울 서신의 행들을 살살이 뒤지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나머지, 바울의 더 큰 목표를 놓쳤다고 한탄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라는 그의 부름을 획일성을 위해 경계를 지키는 일로 축소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지닌 “급진적 성격”을 성별과 권력의 경직된 위계와 맞추어왔습니다. 가벤타가 호소하듯 “바울과 함께 생각하는” 대신, 복음주의자들은 바울을 우리 자신의 문화 전쟁을 위한 무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신약학자 보이킨 샌더스(Boykin Sanders)는 여성에 관한 한 이제 바울을 바르게 이해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남자나 여자나 없다”는 제목 아래 굵은 글씨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서 흑인 교회가 얻는 교훈은, 교회의 일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바울은 성차별이 “세상의 길로 돌아가는 것”임을 보여 주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진실, 곧 복음주의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우리에게 맞추는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바울이 우리를 부르는 그 일,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를 맞추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더 좋은 것을 택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붙잡는 대신, 우리는 사람들이 언제나 해 온 일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위계와 권력이라는 우리 자신의 탑을 쌓는 일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다르게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의 한 사제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결혼 설교를 썼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로시 L. 세이어즈(Dorothy L. Sayers)는 그녀의 고전 추리소설 *The Nine Tailors*(독일어판 *Die neun Schneider*, 제가 좋아하는 또 하나의 책)에서 그를 인용함으로써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미르크(John Mirk)이며, 14세기 후반과 15세기 초에 잉글랜드 서부에 살았습니다. 그의 설교집 *Festial*은 잉글랜드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1547년 공식 개신교 설교집의 초판은 부분적으로 이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쓰였을 정도입니다. *Festial*의 설교들이 종교개혁 직전까지 인쇄되었고, 가톨릭 교리를 담고 있었음에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통치 기간 내내 계속 설교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Festial 설교가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들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나이와 신분과 태생이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야 한다.”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자신의 한 부분에게 가듯 그녀에게로 가야 하며, 그녀는 그를 사랑하고 그는 그녀를 사랑하되 진실로 서로 사랑해야 하며, 그 둘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이 설교는 위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진실로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제는 아내의 반지를 축복할 때, 그것이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녀의 심장으로 이어지는 혈관이 있는 손가락에 끼워진다. 이는 그녀가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그다음에 남편을 사랑해야 함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반지는 아내의 충성이 먼저 하나님께 속하고 그다음에 남편에게 속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설교는 성경 구절로 가득 차 있고 창세기 1-3장과 마태복음 22장과 요한복음 2장을 풍성하게 인용하지만, 바울은 인용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도서, 심지어 베드로전서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것들은 잘 알려진 대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는 신약성경의 글들입니다. “가정 규례”²로 알려진 이 신약성경 단락들(엡 5:21-6:9; 골 3:18-4:1; 벧전 2:18-3:7; 딤후 2:1-10)은 성 역할에 관한 현대의 논의를 지배하며, 1998년 “Baptist Faith and Message”의 추가 조항에서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기꺼이 복종해야” 한다고 바꾼 개정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 크리스틴 피터스(Christine Peters)가 지적하듯이, 미르크의 중세 설교는 “결혼 생활을 잘하는 기초로서 아내의 복종에 매우 적은 비중을 둔다.” 미르크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설교는 하와가 바로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곤경에 빠졌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혼반지는 아내가 남편에게 속한다는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내들에게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라고 일깨우는 것입니다.

제 연구에서 저는 중세 후기 잉글랜드의 설교들이 제 학생들이 반발하는 바울의 단락들을 거의 설교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현대 복음주의 세계의 설교와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중세 세계도 고대 세계나 우리의 현대 세계와 똑같이 가부장제로 기울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다룹니다) 꽤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또한 여성에 관한 바울의 글에 대해 우리가 배운 것과도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 글들이 기독교 역사 전체에 걸쳐 한 줄기로 이어지며, 남자는 이끌고 여자는 따라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키는 데 사용되었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톨릭 전통이 여성을 안수하지 않으니, 결혼에서 남편의 머리 됨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울도 끌어올 것이 틀림없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일관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학자 대니얼 세어(Daniel Cere)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톨릭 전통에는 [부부간의] 복종을 지지하는 공식적인 가르침의 전통이 한 번도 없었다.” 중세사학자 앨퀸 블레이마이어스(Alcuin Blamires)는 성별과 권위와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중세 가톨릭의 가르침을 괴롭힌 “고통스러운 역설들”(실제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 모두)을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흔히 아내에게 나쁜 지도자임이 드러났고, 그로써 중세 설교자들에게 남성 권위의 “기준선”이 흐려졌습니다. 15세기 초의 한 문헌이 주장했듯이, 아내는 남편을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되었습니다. 미르크의 결혼 설교에서 말하듯, 그녀는 먼저 예수를 자신의 “가장 중요한 남편”으로 여기며 그분께 충성을 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중세 여성들에게는 머리이신

예수께서 남편의 권위보다 앞설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여성들이 지도력을 맡을 수도 있었습니다. 12세기의 유명한 스콜라 학자 피에르 아벨라르(Peter Abelard)는 예수께 기름을 부은 여인에 관한 성경 이야기(마 26:6-13; 막 14:3-9; 눅 7:37-50)를 다룹니다. 아벨라르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그리스도의 머리와 연결될” 때 그녀가 “실제로 그를 ‘그리스도’로 세운다”고 씁니다. 예수께서는 한 여자가 자신에게 기름을 붓도록 허락하심으로써 남성의 우위를 폐하십니다. 그때까지 남자들만 할 수 있었던 일, 곧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일을 여자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블레이마이어스는 아벨라르의 논증을 “몸은 여성이고 머리는 남성이라는 관습적인 성별 관계의 놀라운 전환”이라고 묘사합니다. 블레이마이어스는 아벨라르에게 여인이 예수께 기름을 부은 일은 “이름을 붙여 주는 일”이라고 씁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께 기름을 부어 그리스도로 세우는 이는 바로 이 여인이다.” 할 말은 훨씬 더 많지만, 요점은 이것입니다. 남편의 머리 됨에 대한 복음주의의 집착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만큼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Ioannes Paulus II)가 1988년 사도적 서한(“Mulieris dignitatem”)에서 취한 태도가 좋은 예입니다. 그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바울의 글을 결혼에서 남성의 우위와 여성의 복종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이 단락들을 노예제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아내들의 복종을 강조하려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내들의 복종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는 복음주의자들이 신약성경의 가정 규례에서 끌어내는 생각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역사적 맥락은 아내들의 복종이 바울의 글의 목표가 아니었음을 보여 줍니다. 가정 규례에서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정 규례를 받아들인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성별 위계를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환경 속에서 다르게 살도록 가르치려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정 규례를 여성들을 위한 신약성경의 “공포의 본문”이 아니라 로마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으로 읽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액면 그대로(“단순하고 문자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이면, 가정 규례는 로마의 가부장적 구조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곧 아내와 자녀와 노예에 대한 paterfamilias(남편/아버지)의 권위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의 본문이 이를 잘 보여 줍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모질게 대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골 3:18-22).

로마의 가부장제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의 후견은 로마법이었습니다. 아내는 법적으로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아버지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의 권위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여자는 재산을 소유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자기 이름으로 대신 행동하지 않으면 법적, 재정적 거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1세기의 로마 문헌들(신약성경)에서 1세기 로마 세계의

아내들의 삶의 현실을 반영하는 아내들에 관한 논의를 발견하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바울이 받아들인 지시는 바로 로마 세계가 기대했을 법한 것입니다.

현대 복음주의자인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첫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달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이첼 헬드 에반스(Rachel Held Evans)는 기독교의 가정 규례를 로마 가부장제의 “예수 리믹스”라고 묘사합니다. 학계는 리믹스라는 말이 좋은 묘사임을 보여 줍니다. 예를 들어 신약학자 캐롤린 오시크(Carolyn Osiek)와 마거릿 맥도널드(Margaret MacDonald)는 에베소서의 가정 규례에 담긴 윤리적 가르침이 그리스-로마 세계와 너무나 “상반되어서”, 순응의 표시이기엔커녕 “가정 규례가 신자들을 궁극적으로 구별 짓는 것으로 제시된다”고 주장합니다. 시민 루(Shi-Min Lu)가 쓰듯이, 바르게 읽으면 가정 규례는 여성들만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모든 구성원을 로마 세계의 “억압적인 요소들”에서 해방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가부장제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지 말하려고 예수 리믹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비슷한 두 가정 규례 단락의 예수 리믹스를 살펴봅시다.

[골 3:18-19]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모질게 대하지 말라.**

[엡 5:21-22, 25, 28, 33]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할지니라. ...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경외하라.**

현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곧바로 남성의 권위를 듣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러나 바울의 첫 청중, 곧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곧바로 그 반대를 들었을 것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결코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남편들이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것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오늘날 기독교 가정 규례의 강조점은 로마 세계에서의 강조점과 더 이상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원전 4세기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를 봅시다. 그는 『정치학』에서 서구 문화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정 규례 본문 가운데 하나가 될 글을 썼습니다. 그가 한 말을 들어 보십시오.

가정 관리에 관해서 우리는 세 부분이 있음을 보았다. 하나는 노예에 대한 주인의 다스림이고 ..., 또 하나는 아버지의 다스림이며, 세 번째는 남편의 다스림이다. 우리가 보았듯이 남편이자 아버지인 사람은 아내와 자녀를 다스리는데, 둘 다 자유인이지만 그 다스림은 서로 다르다. 자녀에 대한 다스림은 왕의 다스림이고, 아내에 대한 다스림은 헌정적인 다스림이다. 자연의 질서에 예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남자는 본성상 여자보다 다스리기엔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 [남자와 여자 사이의] 불평등은 영속적이다. ... 남자의 용기는 명령하는 데서 드러나고, 여자의 용기는

순종하는 데서 드러난다. ... 모든 계층은 각기 고유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여겨야 한다. 시인이 여자들에게 대해 말하듯이 말이다. "침묵은 여자의 영광이지만, 남자에게는 똑같이 영광이 아니다."

차이가 들리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특별히 남성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다스려야 하며 왜 다스릴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씁니다. 그는 아랫사람들을 대화에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가정 관리는 로마 남자의 영역입니다. 주인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말입니다. 그 말은 오직 남성들에게만 향합니다.

이와 달리 기독교의 가정 규례는 가정 교회의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남자, 여자, 자녀, 노예 모두입니다. 모든 사람이 대화에 포함됩니다. 신학자 루시 페피아트(Lucy Peppiatt)는 이것이 로마 가부장제를 기독교가 안에서부터 무너뜨린 "열쇠"라고 씁니다. 기독교의 가정 규례는 남성 가장의 후견을 전제하는 대신 로마 가정의 모든 구성원에게 말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와 노예와 자녀에게 주어진 통상적인 지위와 그들에게 걸던 기대를 뒤엎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정 규례는 자기 가정의 사람들을 대신해 말하고 행동하는 한 남자에게 권위를 주는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로 연결된 가정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스스로 듣고 행동할 권리를 줍니다. 이것은 로마의 가부장적 구조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가정 교회의 기독교적 구조는 로마 제국의 가부장적 세계에 저항합니다.

바울은 남성의 권위를 부각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가정 규례가 남성의 권위를 다루는 방식도 로마 가부장제에 대한 반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남성의 권위를 정당화하려고 글을 썼습니다. 그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영속적인 불평등을 강조했습니다. 남자의 본성은 명령하는 것이고, 여자의 본성은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정 규례는 다른 일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은 가정에 관한 지시를 먼저 아내들에게 하는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아마도 주도권을 쥐고 있는 남자에게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루시 페피아트(Lucy Peppiatt)와 스캇 맥나이트(Scot McKnight)는 둘 다 바울이 남자의 힘과 권위를 부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대신 바울은 아내들이 주 안에서 마땅한 대로 복종해야 하며(그들이 열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맥나이트는 이렇게 씁니다. "아내에게 주는 지시의 근거를 위계 속에서 남편이 지닌 권위나 힘이나 지도력이나 지위에 두는 대신, 그 근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주님의 삶의 방식에 근거한다."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끄는 분은 로마의 **paterfamilias**가 아니라 예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5장도 로마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는 바울이 가정 규례에 관한 논의 전체를 21절 아래에 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구절을 에베소서 가정 규례의 첫머리에서 읽으면, 이 구절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들도 그래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 여자들의 열등함을 강조하는 대신 여자들의 동등함을 부각합니다. 남편들이 21절에서 복종하라는 부름을 받는 것과 똑같이, 아내들은 22절에서 복종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21절의 피차 복종은 그리스도인들을 (여성의 복종이 강조되는) 로마 군중의 또 다른 일부로 만드는 대신, "신자들을 믿지 않는 세상과 구별하는 삶의 방식의 특징"입니다.

21절은 그 급진적인 함의 때문에, 상호보완주의적(위계적) 견해를 지키려는 성경 번역본들에서 22절과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³ English Standard Version(ESV)은 21절을 번역자들이 "Walk in Love"라는 제목을 붙인 단락의 끝에 넣습니다. 그러면 21절은 "아내와 남편"이라는 제목이 붙은 다음 단락의 시작과 분리되고, 그 단락은 22절로 시작합니다. "아내들이여, 주께 하듯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방식으로 ESV는 22절의 여성의 복종을 부각하기로 선택하며, 그것을 21절에서 바울이 로마 가부장제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린 것과 문자 그대로 떼어 놓습니다.

ESV 번역자들이 에베소서 5장에서 한 일은, 고전기 그리스의 아테네 남성들에 대한 고고학자 이언 모리스(Ian Morris)의 비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리스는 고고학자들이 고대 아테네에서 여성에 대한 물질적 증거를 거의 찾지 못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씁니다. "여자와 노예는 보이지 않는 채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는 "방법론의 문제"나 학자들이 증거를 잘못 분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 도시국가의 "유난히 모든 것에 스며든 남성 시민 문화"는 여성들을 예측시켰을 뿐 아니라, 여성들이 살던 공간을 너무나 잘 통제해서 그들의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보이지 않는 채로 남아 있는 것은 "아테네의 남성 시민들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입니다. ESV의 에베소서 5장 번역에서는 여자들의 복종이 부각되고, 남편들에게 주는 복종하라는 요구는 축소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뜻했기 때문이 아니라, ESV의 상호보완주의 번역자들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21은 이 장에서 로마 가부장제를 급진적으로 뒤집는 유일한 곳이 아닙니다. 바울은 남편들에게 자기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여성의 몸이 불완전하고 기형인 남자의 몸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 발생론』에서 "여성은 말하자면 기형이 된 남성이다"라고 쓰고, "여성의 본성은 더 약하고 더 차갑기 때문에 ... 우리는 여성의 상태를 말하자면 하나의 기형으로 보아야 한다"고 씁니다. 여자들은 문자 그대로 괴물이었습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의 기형이 "정상적이고" 유용한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2세기에 갈레노스(Galen)도 여자들을, 생식기를 몸 밖으로 밀어낼 열이 부족한 불완전한 남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도 기형인 남자들이 있는 것이 좋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번식이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바울은 여성의 몸에 대한 이런 경멸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남자의 몸이 여자의 몸보다 더 가치 있거나 더 존귀하지 않다고 선포합니다.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 있으며, 남자들은 자기 남자의 몸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여자의 몸을 사랑해야 합니다 (엡 5:27-29). 저는 학생들에게, 바울을 공부하면 기독교가 "남성적인 특징"을 지닌다는 존 파이프(John Piper)의 주장이 얼마나 쉽게 반박되는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남성 권위를 자랑하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벌리 로버츠 가벤타(Beverly Roberts Gaventa)가 밝혀냈듯이, 바울은 자신이 함께 세운 교회들과의 관계를 묘사하려고 편지에서 일곱 번이나 어머니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이는 바울이 아버지의 이미지보다 어머니의 이미지를 더 자주 사용한다는 뜻이다. 이는 인상적인 일이다. 특히 바울 서신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에서 이 이미지들이 사실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바울은 남성 사도인 자신을 임신한 어머니로, 해산하는 어머니로, 심지어 젖을 먹이는 어머니로 묘사합니다.

바울은 여성의 몸을 가치 있게 여길 뿐 아니라, “자신에게 수치를 안겨 줄 역할, 곧 여성과 동일시된 남자라는 수치를 위해 가부장적 권위를 내려놓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급진적입니까! 1세기 교회의 여성들에게 그의 말이 얼마나 반가웠을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로마 세계에서 여성의 몸을 약하게 만들던 것이 바울의 글에서는 그 몸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문학적으로 여성의 모습을 취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없다”는 갈라디아서 3:28에 있는 자기 말의 급진적인 주장을 몸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중세 그리스도인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울의 어머니 이미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가벤타는 바울의 놀라운 어머니 이미지에 주목한 현대 학자가 거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달리 역사학자 캐럴라인 워커 바이넘(Caroline Walker Bynum)은 12세기 남성 성직자들이 사용한 어머니 이미지의 빈도에 깊은 인상을 받아, 획기적인 연구서 *Jesus as Mother: Studies in the Spirituality of the High Middle Ages*를 썼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씁니다. “내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보통 남성으로 묘사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묘사하기 위해 명시적이고 세밀한 어머니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왜 12세기 시토회 수도사들 사이에서 그토록 인기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녀는 여성에 대한 태도에서는 오히려 가부장적이었던 베네딕도회 수도사 캔터베리의 안셀무스(Anselmus Cantuariensis)를, 바울의 어머니 이미지를 받아들인 최초의 중세 성직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7과 갈라디아서 4:19에 있는 바울의 글을 분명히 본떠 안셀무스는 이렇게 씁니다. “당신[바울]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모와 같습니다. 그 유모는 자기 아이들을 돌볼 뿐 아니라, 놀라운 사랑의 수고로 그들을 두 번째로 낳습니다.”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바울의 급진적인 어머니 이미지 사용을 간과한다고 해서 그 이미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다시 바울을 잘못 이해했다는 뜻일 뿐입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로마의 성별 위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 규례를 일종의 로마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으로 읽어야 한다고 제게 확신을 준 또 하나의 증거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세계에서 어떻게 인식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곧 “성별 규범을 벗어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오시크(Osiek)와 맥도널드(MacDonald)는 소 플리니우스(Plinius Minor)가 자신이 여성 집사라고 부른 두 그리스도인 여성을 고문한 일을 논한 뒤, 기독교를 “타락하고 지나친 미신”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이렇게 씁니다. “플리니우스는 남성 지도자에 대한 언급은 빼고 그 집단 안의 일종의 여성 지도력에 주의를 돌림으로써, 남성다움의 이상이 위협받고 있음을 암시했다. 여자들이 통제권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로마인의 관점에서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여성을 지도적 역할에 세웠을 뿐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 자녀와 노예가 동등한 자격으로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 곧 전통적으로 여성의 공간에서 모였습니다. 기독교는 로마 남성다움의 이상을 허무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규범에서 벗어나고 부도덕한 것이었습니다. 플리니우스가 기독교를 혐오한 것은 기독교가 로마의 가정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것을 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정 규례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듯이 우리 주변에서 페미니즘이 혼란스럽게 날뛰는 동안, 복음주의 교회는 시냇가에 심긴 잘 가꾼 나무처럼 서 있습니다. 가지들의 위계를 갖추고 굳건하고 평온하게 말입니다. 실제로 존 파이퍼와

웨이인 그루뎀(Wayne Grudem)이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에서 표현한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서문에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성됨과 여성됨에 대한 고귀한 비전을 되찾도록 돕고 싶다. ... 우리는 이 새로운 비전, 곧 성경적 ‘상호 보완성’의 비전이 이전의 잘못을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별의 차이를 페미니즘이 흐려놓는 데서 생기는 반대 방향의 잘못도 피하게 해 주기를 바란다.” 다만 1세기 바울의 세계는 로마의 성별 위계를 “새로운 비전”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가정 규례에 반영된 로마의 가부장적 구조는 “새로운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paterfamilias의 권력을 인정하는 것은 로마 세계가 이미 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가부장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다르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의 가정 규례는 초기 교회가 기독교적이지 않고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해 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려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그 세상에 맞추어 들어가야 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도 높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가부장제의 틀을 가능한 한 유지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사람의 가치와 존엄도 높여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로마 가부장제를 리믹스할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기독교의 가정 규례는 남자들을 일차적인 권위로 삼아 그들에게 말하는 대신, 모든 사람을 대화에 끌어들이습니다. 기독교의 가정 규례는 여성의 열등함으로 남성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대신, 여자들이 남자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확인합니다. 기독교의 가정 규례는 아내의 복종에 집중하는 대신(그것은 모두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로마법이 허용하던 것과 정반대의 일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아내의 삶을 지배하는 권력을 휘두르는 대신 아내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페피아트는 이것이 “기독교 혁명”이라고 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변의 세상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정반대로 이해해 온 것은 아닐까요? **그의 초점이 한 번도 머리인 남자와 여자의 복종에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의 비전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이 고대의 성별 위계를 베끼는 대신, 기독교 복음이 로마의 가정까지도 어떻게 해방하는지 우리에게 보여 주려 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몇 년 전 남편이 우리 교회의 고등학생 청소년 여러 명과 함께 도시 밖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주말에 수련회에 가지 않은 모든 아이가 속해 있던 청소년 주일학교를 평소에 가르치던 남자가 아프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가능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괜찮았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일을 사랑하고, 그때 저는 실력이 한창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매주 저는 베일러 대학교(Baylor University)에서 학부 수업 여섯 개를 가르쳤을 뿐 아니라, 수요일 저녁에는 고등학생 여학생들을, 또 멘토로서 만나던 대학원생과 학부생과 청소년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즉석에서 하는 것이라도 제게 제2의 천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여자가 남자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끝. 그리고 그들에게 남자는 열세 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에게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십대 남녀 학생들로 가득한 교실에서 남자 교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특별 허가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지난주 설교에 관한 질문들을 함께 훑어보며 교사가 아니라 진행자로만 역할을 한다면 괜찮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제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분명 그 일부는 제 자존심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큰 연구 중심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교수였고(제 두 번째 전공 분야는 종교학입니다), 그런 제가 고등학생 주일학교를 가르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제가 화가 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틀렸다고 믿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르칠 수 없었던 것은, 바울이 여자들에게 잠잠하고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지 말라고 했다고 목사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정 규례에서와 꼭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울의 로마적 맥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를 그저 오해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의 이교 세계에 대한 바울의 반박을 바울 자신의 말과 혼동해 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은 여자들에게 잠잠하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에는 그의 말이 진술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은 자신이 잘 아는 교회들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그들을 알았습니다. 가벤타는 고린도전서와 관련하여 “이런 질문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겨나지 않는다”고 일깨워 줍니다. 바울은 그들의 싸움과 사람들과 말썽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의 기본을 이해하려고 역사 속으로 깊이 파고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예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영적 은사의 가치를 두고 경쟁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교만해졌는지, 누가 방언보다 예언을 더 좋아했는지 같은 세부 사항을 직접 알지는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바로잡았는지는 압니다. 그들의 은사는 모두 같은 성령에게서 오고, 그들의 은사는 모두 같은 몸 안에서 작용하며, 그들의 은사 가운데 어느 것도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이 중요합니다. 2,000년이 넘는 거리도 그 의미를 흐리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의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면, 우리는 그의 의미를 왜곡하고 그의 두터지 흠두둑을 산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33-36이 뛰어난 예를 제공합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들은 모임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모임 가운데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바울은 여자들이 조용히 하고 복종하며 남편의 영적 권위에 의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 단락은 현대 복음주의자들에게 큰 산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바울이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강조되었습니다. 이 단락은 상호보완주의 가르침의 기초 본문이 되었습니다. 로마 역사를 더 잘 이해하면 이 단락을 해석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기원전 215년, 전쟁에 지고 돈에 쪼들리던 로마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배경은 로마 역사상 가장 큰 군사적 패배였습니다. 한 해 전 8월 2일,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Hannibal)이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칸나이(Cannae)에서 로마 군대를 섬멸했습니다. 사료들은 그날 5만에서 7만 명의 로마 병사가 죽었다고 전합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들 가운데 몇몇보다 많은 수입니다. 1세기 로마의 역사가 리비우스(Livius)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분명 이런 불행의 무게 아래 무너지지 않았을 민족은 달리 없다.” 다만 로마는 다른 민족들과 같지 않았습니다(리비우스가 말하려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시다). 로마는 무너지지 않았습시다. 로마인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 군대를 일으켜 계속 싸웠습시다. 로마는 결연함 그 자체였습시다.

제 학생들은 제가 순수한 군사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면 곧 여자들이 등장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실제로 그렇습시다. 로마의 건축 조치는 독립적이고 부유한 여성들, 곧 남성 후견인이 갑자기 줄어든 덕을 본 아내와 딸들이라는 늘어나는 집단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이어졌습시다. 로마가 그렇게 한 데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시다(역사학자들은 지금도 이를 두고 논쟁합시다). 한 가지 이유는 분명 전쟁 수행이었습시다. 로마는 모든 사람의 돈이 필요했습시다. 그래서 그들은 오피우스 법(Lex Oppia)을 통과시켰습시다. 여자들은 더 이상 사치스럽게 옷을 입을 수 없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로마 안에서) 마차를 탈 수 없었으며, 금을 반 온스 넘게 가질 수 없었습시다. 몇몇은 전시에 받은 유산을 국가에 넘겨야 하기까지 했습시다. 이 여성들은 자기 자신보다 로마를 위해 돈을 더 쓰도록 요구받았습시다.

로마가 오피우스 법을 제정한 두 번째 이유는 아마 여성들이 부를 공공연히 과시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이었을 것입시다. 칸나이 전투 뒤 로마는 애도에 잠겨 있었습시다. 잔치를 벌이고 멋진 옷을 입을 때가 아니었습시다. 문을 굳게 닫아걸고 죽을 때까지 싸울 때였습시다(그리고 그들은 대체로 그렇게 했습시다). 무엇보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돈이 더 많을 때가 아니었습시다. 이미 보았듯이 로마는 가부장적 사회였고, 로마의 기혼 부인들, 곧 남편의 후견 아래 있던 결혼한 여자들은 로마 사회의 성공을 상징했습시다. 남성의 지도에서 벗어난 독립적이고 부유한 여자들은 그런 상징이 되지 못했습시다.

덧붙여 말하면, 로마가 이겼습시다.

그러나 위기가 지나간 뒤에도, 남자들의 부를 제한하던 법들은 폐지되었는데 여자들의 부를 제한하던 법은 그대로 남았습시다. 기원전 195년 무렵 로마의 여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시다. 그들은 항의하며 거리와 심지어 포룸으로 가는 길까지 막고 그 법의 폐지를 요구했습시다.

한 집정관, 대 카토(Cato Maior)는 법의 폐지에 반대했습시다. 그가 한 말을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리비우스가 그의 연설을 아마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Caesar Augustus)의 통치 기간(기원전 27년부터 기원후 14년까지)에 기록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는 우리의 자유가 여자들의 광기에 짓눌리고, 여기 포룸에서는 짓밟히고 있다. 우리가 개개인을 제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 모두를 함께 두려워하고 있다. ... 실로 나는 얼마 전 여자들의 무리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얼굴이 붉어졌다. ... 나는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이게 무슨 행동이요? 공공장소를 돌아다니고, 거리를 막고, 다른 여자들의 남편에게 말을 걸다니! 같은 것을 집에서 당신들 남편에게 물어볼 수는 없었소? 당신들은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보다 공공장소에서 남의 남편에게 더 상냥하오? 그러나 집에서라도 여기서 어떤 법이 통과되고 폐지되는지에 당신들이 관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소.” 우리 조상들은 여자들이 어떤 일도, 사적인 일조차도 후견인 없이 처리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자들이 부모나 형제나 남편의 권위

아래 있기를 원했다. 그런데 우리는 (신들이여 도우소서!) 이제 그들이 정치를 넘보고 포룸과 우리의 집회에 끼어들게 내버려 두고 있다. 그들이 호민관들을 설득해 폐지에 표를 던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거리와 교차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 그들이 지금 이긴다면, 무엇인들 시도하지 않겠는가? 그들이 여러분과 대등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여러분보다 우월해질 것이다.

리비우스는 카토의 이 연설을 자신의 로마사에 기록했습니다. 1세기 말에 글을 쓴 소 플리니우스는 리비우스를 유명 인사로 묘사합니다. 리비우스는 인기 있는 작가였고, 그의 역사서는 아주 잘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로서 저는 신약성경에 리비우스의 메아리가 나타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34-35를 다시 들어 보십시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알고자 하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아닙니다. 아주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깝습니다. 분명한 메아리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로마적 환경에서 끌어오고 있습니다.

카토의 연설만이 여성에 대한 이런 관점을 표현하는 로마 문헌은 아닙니다. 신약학자 찰스 탈버트(Charles Talbert)는 유베날리스(Juvenal, 기원후 2세기 초)도 『풍자시』 제6편에서, 집에 머무는 대신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며 남자들의 국정에 끼어드는 여자들을 정죄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로마 세계는 여자들을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로 보았습니다. 로마 세계는 여자들이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는 대신 남편이 집에서 아내에게 정보를 전해 주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로마 세계는 여자들에게 공적인 집회 장소에서 잠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은 교육받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이해를 인용한 다음 반박하는 방식으로 바로잡는, 당시의 일반적인 수사학적 관행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과 7장에서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된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함이 좋다”는 인용들로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경우들에서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된다” 같은 이교 세계의 잘못된 견해를 인용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그것을 크게 바꿉니다. 바울은 여성에 관한 당대의 견해들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여자는 공공장소에서 잠잠하고 집에서 남편에게서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리비우스(Livius)의 견해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루시 페피아트(Lucy Peppiatt)가 주장했듯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과 14장에서 고린도전서 6장과 7장과 같은 일을 하고 있을 수는 없을까요? 나쁜 관행을 인용한 다음 바로잡음으로써 그 나쁜 관행을 반박하는 것 말입니다. 페피아트는 이렇게 씁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여자들에 대한 금지는,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과 달리 자신들의 문화적 기대와 가치에 따라 여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 주는 예들이다.”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자들에게 자기들의 문화적 제약을 지우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 걱정한 나머지 그 문제를 직접 지적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고린도의 남자들이 로마 세계에서 기독교 세계로 끌고 들어오려던 나쁜 관행을 인용한 다음, 그것에 맞섰습니다. Revised Standard Version(RSV)은 바울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가정을 뒷받침합니다. 바울은 먼저 문화적 제약을 제시합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들도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알고자 하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전 14:33-35). 그리고 나서 바울이 끼어듭니다. “무엇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혹은 너희만이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성령을 받은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인정하라.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도 인정을 받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36-40절).

저는 수업에서 이것을 자주 연습으로 합니다. 한 학생에게 자기가 가진 번역본, 대개 ESV나 NIV로 읽게 합니다. 그런 다음 저는 RSV로 읽어 주면서 단어들을 그에 맞게 강조합니다. 제가 “무엇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라고 외치면, 대개 반 전체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번은 한 여학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 박사님!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그렇다고, 바로 그렇다고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34-35를 고린도의 관행을 보여 주는 인용으로 읽는다면(D. W. 오델스콧(D. W. Odell-Scott)이 1983년에, 찰스 탈버트(Charles Talbert)가 1987년에 [독일어 번역자 주: 토마스 쉬르마허(Thomas Schirmacher)도 1991년에, 캐서린 부시넬(Katharine Bushnell)은 이미 100년 전에], 그리고 최근에는 페피아트가 다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하던 일(“여자들은 잠잠하라”)을 구별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의 관행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무엇이라!”)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한 일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매우 이치에 맞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미 바울의 것이 아닌 인용이 여럿 들어 있으며, 34-35절의 문구는 로마 자료들과 놀라울 만큼 가깝습니다. 마그 모우치코(Marg Mowczko)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14:34-35가 바울의 것이 아닌 인용이라는 견해는, 34-35절이 본문에 가져오는 갑작스러운 어조의 변화와, 그 뒤 36절에서 일어나는 주제와 어조와 문법적 성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몇 안 되는 견해 가운데 하나이다.” 바울이 실제로 로마의 세계관을 인용하여 기독교의 세계관을 그것과 맞세우고 있다면, 그의 의미는 복음주의 여성들이 배워 온 것과 정반대입니다.

바울이 로마 세계처럼 여자들에게 잠잠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의 세계에서는 여자들이 말해도 된다고 남자들에게 말하려 한 것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또다시) 바울이 말하려던 바를 놓친 것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꾸짖음을 마음에 새겨 여자들이 말하도록 허락하는 대신, 우리는 바울이 정죄한 바로 그 가부장적 관행을 이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역사학자로서 저는 바울의 말이 그가 살던 그리스-로마 세계와 얼마나 비슷한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틀렸고 바울이 반박할 목적으로 일부러 로마 자료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을 끌어다 썼을 뿐이라 해도, 저는 여전히 바울이 고린도의 여자들에게 준 지시는 그 역사적 맥락에 한정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모순이 없는 것은 좋은 해석의 미덕이기 때문입니다(곧 장 전체와 편지 전체와 신약성경 전체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자들이 잠잠해야 한다는 전면적인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편지에서 여자들이 말하도록 허락합니다(고린도전서 11:1-6이 좋은 예입니다). 바울은 여성의 리더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는 초기 교회에서 여자들이 지도했으며 자신이 그들의 사역을 지지한다고 직접 말합니다(로마서 16장은 다음 단락에서 다루겠습니다). 경직된 성별 위계를 확정하는 것은 바울의

관심사가 결코 아닙니다. 베벌리 로버츠 가벤타(Beverly Roberts Gaventa)가 고린도전서의 앞부분 (12:1-7)과 관련하여 일깨워 주듯이, 바울의 "섬김으로의 부르심은 성별에 따라 제한되지 않으므로, 상호 보완성에 관한 논증은 여기서 아무런 근거도 찾지 못한다." **바울이 여자들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했다고 고집함으로써, 복음주의자들은 또다시 가부장적 문화에 항복했습니다. 레이첼 헬드 에반스(Rachel Held Evans)가 한때 우리에게 권했듯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배 밖으로 던져 버리는 대신, 우리는 바울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려 했던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배 밖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바울에게 나오는 성경의 여성들은 우리의 성경적 여성상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 생각을 바꾼 것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딸깍 하고 맞아떨어진 그 주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설교를 듣고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너무 흔들려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점심 그릇을 문질러 닦는 동안 흐르는 물이 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남편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설거지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가 머리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는 조리대에 기대섰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뒤 그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그는 1분쯤 더 서 있다가 그냥 "알았어요"라고 말하고 자리를 뒀습니다. 저는 그가 그 점에서 저와 생각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상호보완주의 교회에서 자랐고 상호보완주의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귀 기울여 듣고 다른 신학적 관점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가 제게 보여 준 신뢰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사실 결정타가 된 것은 그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설교가 남성 리더십에 관한 것이었다고 기억하기는 합니다. 결정타가 된 것은 제가 얼마 전 여성사 수업에서 한 강의였습니다. 우리는 고대 세계에서 중세까지 시대순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초기 교회의 여성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흥적으로 한 학생에게 성경을 펴서 로마서 16장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했습니다(기독교 대학에서는 적어도 한 학생은 성경을 들고 있으리라고 언제나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잘 듣고 들리는 여자 이름을 모두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인상 깊은 교육의 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제게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 구절들이 여자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소리 내어 읽히는 것을 들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뵤뵤.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고 자기 가정 교회에서 그 편지를 소리 내어 읽은 여성 집사.

브리스가(브리스길라). 그녀의 이름은 남편의 이름보다 먼저 언급되며(로마 세계에서는 꽤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마리아. 아시아에서 복음을 위해 힘써 일한 일꾼.

유니아. 사도들 가운데 뛰어난 여성.

드루배나와 드루보사. 주 안에서 바울과 함께 싸운 여성들.

사랑하는 버시. 그녀도 주님을 위해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 율리아, 그리고 네레오의 자매.

바울은 열 명의 여성을 높입니다.

일곱 여성이 그들의 섬김으로 인정받습니다. 뵈뵈, 브리스길라, 마리아, 유니아, 드루배나, 드루보사, 버시입니다. 한 여성 뵈뵈는 여성 집사로 불립니다. 케빈 매디건(Kevin Madigan)과 캐롤린 오시크(Carolyn Osiek)는 뵈뵈가 "우리가 이름을 아는, 1세기 교회의 유일한 여성 집사"라고 씁니다. 또 다른 여성 유니아는 단순히 사도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으로 확인됩니다.

로마서 16장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그들의 직분으로 확인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이 여성들의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죠?" 강의에 너무 몰입해서 손을 드는 것도 잊은 한 여학생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왜 이걸 전에는 몰랐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쓰는 영어 성경 번역본이 여자들의 활동을 흐려 놓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그녀에게 말하고, 설명을 더 이어 갔습니다.

그날 강의하면서 저는 제 말을 스스로 듣고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들이 초기 교회에서 여성의 지도적 역할을 어떻게 가리는데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제 말을 들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로마서 16장의 여러 번역을 살펴보는 제 말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1986년 무디 출판사(Moody Press)에서 나온 Ryrie Study Bible을 보십시오(독일어 번역본도 나와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이 성경을 가지고 계셨고, 저는 할아버지의 성경을 제 책장에 두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뵈뵈를 여성 집사로 인정하는 대신, 그녀의 역할을 "여중"으로 옮깁니다. 연구 주석을 들어 보십시오. "여기서 '여중'으로 번역된 단어는 흔히 '여성 집사'로 번역되며, 그래서 어떤 이들은 뵈뵈가 직분을 가진 여성 집사(Diakonisse)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단어는 여기서 돕는 사람이라는 비공식적인 의미로 쓰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 "눈치챘습니까?"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뵈뵈의 역할을 왜 "여성 집사"가 아니라 "여중"으로 옮겨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하나도 제시되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왜 오히려 "돕는 사람이라는 비공식적인 의미"로 쓰였는지에 대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번역을 택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뵈뵈가 여자였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녀가 집사였을 리 없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라는 표현이 남자 이름 뒤에 나왔다면, "집사"의 의미가 의문시되는 일은 결코 없었으리라고 저는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동안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이 노래하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말고는 강단에 거의 서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은 우리 교회의 어린이 예배를 이끌고, 남자들은 어른들을 위한 사역을 이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린 주일학교 반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목사가 와서 제 자료를 검토했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교회사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는 제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 본문을 다루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대학 강의실 앞에 서 있던 그때, 저는 스스로가 위선자처럼 느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거기 서서 학생들에게 설득력 있는 역사적 증거들을 하나하나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지도하는 여성의 문제는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울을 어떻게 오해하고 흐려 놓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학생들에게 초기 교회에서 여자들이 실제로 지도하고 가르쳤으며, 여성 집사로, 여성 사도로까지 섬겼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유니아는 거의 근대에 이르기까지 여성 사도로 여겨졌다고 저는 그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남자 이름 유니아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신약학자 엘던 제이 엡(Eldon Jay Epp)은 에라스무스(Erasmus)부터 20세기까지의 헬라어 신약성경들을 정리한 두 개의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표들을 함께 보면, 헬라어 이름 유니아는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결같이 여성형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갑자기 이 이름이 남성형 유니아스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가벤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엡은 고통스럽고도 당혹스러운 방식으로, 20세기에 로마서 16:7을 다룰 때 중요한 요인이 여자는 사도가 될 수 없다는 가정이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유니아가 유니아스가 된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남자만 사도가 될 수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로서 저는 바울 서신의 여성들이 왜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이 여성들에게 지우는 이른바 제한들에 들어맞지 않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울을 잘못 읽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여성을 대하는 데서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해석으로 그를 일관성 없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16장이 분명히 보여 주듯이, 실제로는 성경의 여성들이 성경적 여성상에 대한 현대의 생각과 모순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여자가 열세 살이 넘은 소년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주장했을 때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잠잠했습니다.

저는 강의를 계속했습니다. 뵈뵈에 대해서도 역사적 현실은 같다고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녀를 여성 집사라고 부릅니다. 아무도 본문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반박할 수 있는 것은 본문의 의미뿐입니다. 초기 교부들은 뵈뵈를 여성으로, 또 여성 집사로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리게네스(Origenes)는 3세기 초에, 뵈뵈의 칭호가 “사도적 권위로” 다음 사실을 증명한다고 썼습니다. “여자들도 교회의 섬김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을 말이다. 뵈뵈는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에서 바로 그 직분에 세워졌다. 바울은 큰 칭찬과 인정을 담아 그녀의 훌륭한 행적까지 열거한다.” 오리게네스가 “교회의 섬김”이라는 말로 무엇을 뜻했는지 물을 수는 있겠지만, 오리게네스가 뵈뵈에게 맡겨진 역할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 세기 뒤 “황금의 입”을 가진 설교자 요한 크리소스토무스(Ioannes Chrysostomus)는, 뵈뵈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먼저” 언급되고 “자매”로 불리며 “여성 집사”로 인정받은 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영예였는지에 대해 썼습니다. 크리소스토무스는 “남자와 여자 모두” 뵈뵈를 “성도”로서 “본받아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 디모데전서 3:11에 관한 설교에서 크리소스토무스는 남자들과 똑같이 여자들도 집사로 이해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여자들 일반에 대해 말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그가 하던 말 한가운데에 왜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끼워 넣으려 했겠는가? 오히려 그는 집사의 지위를 가진 여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는 여성 집사들에게도 합당하다. 이는 특히 교회에서 필요하고 선하고 옳기 때문이다.”

4세기의 장로이자 집사였던 사람의 이런 열린 여성 지도력 이해가 여러분을 놀라게 한다면, 교회사학자 매디건과 오시크는 그럴 일이 아니라고 일깨워 줍니다. 그들은 이렇게 씁니다. “안디옥과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던 요한의 교회들에서는 여성 집사들 또는 ‘디아코니사’들(Diakonissen)이 잘 알려져 있었다.” 크리스토폴로무스에게 보비를 여성 집사로 묘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4세기 좋은 친구들 가운데 몇 사람이 여성 집사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매디건과 오시크는 초기 교회의 여성 집사들에 대한 (비문과 문헌상의) 언급을 107개나 찾아냈습니다.

물론 초기 교회의 모든 사람이 여성 지도자를 지지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장로 직분은 고대 세계의 가부장적 편견이 이미 기독교 안에 얼마나 스며들었는지를 보여 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여성의 몸을 괴물 같고 기형인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생각을 공의회 결정들에 들여왔고, 이미 5세기에 여성의 몸은 지도하는 일에 맞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매디건과 오시크가 쓰듯이 “제의적 정결은 남자와, 부정함은 여자와 연결된다. 이것이 여성 장로에 반대하는 가장 큰 논거였다.” 6세기에 이르러, 교회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가며 로마 권력의 옛 세속적 자리들을 주교와 사제라는 거룩한 직분으로 대체할 무렵, 여성들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남자들의 권위 아래 있던 예전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방향이었습니다.

“바 박사님, 왜 교회에서는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나요?”

저는 그 여학생을 바라보았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저 모른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신학교 교과서는 흔히 역사학자가 아니라 목사들이 씁니다(특히 여성 역사학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상호보완주의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은, ESV가 유니아를 “사도들 가운데 뛰어난”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잘 알려진”으로 옮긴 것이 여자들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떼어 놓으려는 의도적인 수였다는 것을 모릅니다(롬 16:7). 사람들은 현대 교회에서 여자들이 지도하는 자리에서 배제되는 것과 똑같이 초기 교회에서도 여자들이 지도하는 자리에서 배제되었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자신이 참이라고 여기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들이 제가 소리 내어 말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날 싱크대 앞에 서 있을 때 제 눈에 눈물이 고이게 한 것은, 제가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는에도 우리 교회에서 잠잠했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워서 잠잠했습니다. 친구들을 잃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잃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상호보완주의는 규칙을 지키는 여성들에게 보상을 줍니다. 잠잠함으로써 저는 남편이 지도자로 남아 있도록 도왔습니다. 잠잠함으로써 저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잠잠함으로써 저는 주변 여성들의 우정과 신뢰를 지켰습니다. 잠잠함으로써 저는 편안한 삶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의 여성들에 관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칭찬받는 여성들, 곧 보비와 브리스길라와 유니아 같은 여성들이 현대의 성경적 여성상이 그어 놓은 경계에 의문을 던진다는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의 여성들이 지도적

역할에서 멀어져 있는 이유가, 로마의 가부장제가 다시 초기 교회에 스며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교의 로마를 벗어 버리고 예수를 붙잡는 대신, 우리는 그 반대로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를 내버리고 고대 세계의 억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는 싱크대의 물을 잠그고 그릇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잠잠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주

1. 영어권에서 상호보완주의(Komplementarismus)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보완한다는 뜻이지만, 남자가 이끌고 여자가 따르는 위계적 질서 안에서의 보완을 뜻합니다. 곧 여자는 창조 질서의 결과나 표현으로서 남자에게 짝지어질 뿐 아니라 남자 아래에 놓입니다. 베스 바와 독일어 번역자는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위계적인 위아래 없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보완한다는 입장을 대변합니다.
2. 루터(Luther)는 가정 안에서의 삶과 서로의 관계를 규정한 이 본문들을 "가정 규례"(Haustafeln)라고 불렀습니다.
3. 많은 독일어 번역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